



여수 송기홍



영광 서회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자치분권시대 대응’ 순천형 정책 돋보인다

시, 국소별 팀장이상 시정 방향과 업무 공유



순천시는 최근 각 부서별 2018년 업무실행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에 앞서 조종훈 순천시장은 “2017년에 순천시가 거둔 폭발적인 성과들은 그 동안 미래에 대한 준비이었고, 그 길이 옳은 길이었으며, 시 산하 전 공직자들의 남다른 실효와 열정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율리 “지금까지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일자리 등 순천이 선도해 온 차별화된 성과들을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2018년은 더욱 더 시민과 함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실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안전행정 분야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행정 시스템과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즐겁고 합리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공직문화로 차별화할 것

과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도시, 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등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읍면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실질적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농업 분야는 시민이 체감하는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업무로 농촌에서 성공한 귀농인, 마을기업 등 농촌공동체와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순천형 농정을 주문했다. 특히 로컬푸드, Non GMO 등 친환경 경작농업은 획기적인 농업정책으

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만큼 확실한 순천형 농정으로 정착시켜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2018년을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을 시정목표로 삼은 만큼 계층별 맞춤형 행복시책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최고의 복지도시를 만들어갈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복지와 보건 업무간의 협업과 시너지를 위해 보건소와 복지부서 합동 보고회를 통해 시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읍면동 복지팀 강화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업무 혁신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 노년층의 복지 또한 일자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세대 융합형 일자리, 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의 수준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경제분야는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도시철도산업단지, 연향빌 마스터플랜 등 3대 경제성장 정책과 용계산 탄소제로 기적의 숲 조성사업, 5060화랑센터, 차매안심센터, 계층별 일자리 사업 등 사람 중심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지난 해 6000만을 돌파한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관광객 1천만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고품격 생태관광 도시를 위해 축제, 문화예술 행사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반을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회순군, 귀농가구 100세대 유치 ‘온 힘’

농업창업자금 3억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자를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등 귀농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귀농 초보자에게는 다양한 홍보와 정보제공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귀농 실행자에게는 지역민과 상생 화합을 위한 마을잔치와, 동호회 지원, 귀농 정착자에게는 영농정착 지원사업, 직거래 장터운영 지원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귀농귀촌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 결과 전년도 회순군 귀농 농업창업 농가는 전년 대비 29% 늘었고 귀농학교 수료생중 화순으로 정착한 도시민은 36%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사업은 현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귀농인 정착지원사

회순군이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해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지원시책을 펼치는 등 도시민 농촌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22일 회순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귀농가구 100세대 유치를 목표로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과 7천500만원의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을 비롯해, 귀농학교 운영, 농가주택수리비, 소형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 3~5개월간의 귀농연수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도시민 이주 희망자 및 이주

업, 귀농협장실습교육, 농가주택 수리비등 총 9개 분야로 관심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사)회순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유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지원, (사)회순군귀농귀촌협의회는 도시민 이주 희망자와 이주자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기로 했다.

(사)회순군귀농귀촌협의회는 도시민이주지원센터 운영지원,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되며, 도시민에게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올해 5년차로 2014~2019년까지 6년간 매년 2억씩 지원받아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민 유치를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이다.

회순=박순철 기자

‘나주향교 선비문화학당’ 개강

내달 1일부터 66회 운영

나주향교(전교(典校) 김평호(金浬鎬))에서는 2018년 나주향교 선비문화학당을 오는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달 6회씩, 총 66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 시작되어 5년째를

맞이한 선비문화학당은 올해는 어·맹자 해설, 한문·사예 등 3과목을 개설해 1회 2시간씩 총 132시간에 걸친 강의를 진행한다.

개강식 및 첫 강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나주향교 충효관에서 개최된다.

나주향교는 이번 과목들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온 유교사상과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윤리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문화시민을 양성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나주향교 선비문화학당 관계자는 “유학과 서예를 배우고 익히는 기쁨이 현대인의 삭막한 삶속에 신선한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양시, 2018년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참여자 모집



오는 29일부터 12명 모집

광양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2018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실업자와 장년층 퇴직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숲가꾸기 산물 수집 확대를 통한 산물이용 촉진과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 모집인원은 12명으로, 신청 자격으로는 공고일 기준 (2018.1.17.) 광양시에 주소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8세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자이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지참해 시 산림소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산림분야 자격증 소유와 기술교육 이수 여부, 산림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관련 업무 활동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거쳐 신청할 계획이며, 미 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3월 초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산림 정비와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숲가꾸기 산물수집·활용, 주요 산림경관 훼손 정갈류 제거작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관련서류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산림소득과 산림조성팀(☎797-3571)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종권 기자

순천시보건소, 어르신 낙상예방 운동교실 운영

부상·골절 예방 위한 신체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오는 2월부터 2018년도 어르신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제1기에서부터 3기로 나누어 운영한다.

제1기 운동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14주간 운영되며, 모집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부터 만 75세까지 시민이 대상이다.

보건소에서는 매년 신체활동 향

상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낙상으로 인한 부상, 골절을 예방하고자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신체활동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근력, 유연성, 평형성을 단련시키는 운동을 통해 신체기능을 강화시켜 낙상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활력화

품위 있는 삶 유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이밖에도 2월부터는 주민의 생활터(아장, 동전, 역전장)를 찾아가는 '짬짬이 체조' '반성질환 건강교실' 직장인을 위한 '달밤 운동교실' 등 시민 요구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749-687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신암삼, 방울도마도, 느타리버섯